

“쓸쓸한 현실 넘어 존재의 심층 감싸다”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수상작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었던’ 등 실려
내달 1일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관에서 시상식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발간됐다.

지난해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일보와 시산맥이 문인 40여 명과 함께 운동주의 고향 복간도 운영을 방편해 조출한 기념 행사를 치른 바 있다. 올해는 시산맥 측이 운동주시인이 육사한 후쿠오카 형무소(현재는 후쿠오카 구치소로 바뀜) 인근 모모치 공원을 방문해 추모시를 낭송하고 시인의 넋을 기렸다.

이번에 발간된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은 운동주의 탄생 100주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운동주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시인을 대상으로 문학상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각 분야의 수상자들이 지난날 결정됐다.

이번 작품집에는 수상작인 전동균(부산 동의대 교수) 시인의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었던’ 외 6편과 자선 대표작 ‘1205호’ 외 4편이 실렸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한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운동주서시해외작가상 수상작인 신지혜 시인의 ‘토네이도’ 외 4편과 자선 대표작 ‘물방울 하나가 매달려 있다’ 외 4편도 실렸다. 또 해외에서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활동을 전개해온 문인에게 주는 운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의 주인공 이유식 시인의 ‘한강’ 외 4편도 수록돼 있다.

각 부문 수상자들의 작가 연보, 수상소감, 심사평 등도 실려 있어 심사 경위를 비롯한 선정 작품 의미 등 올해의 운동주서시문학상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 본심을 담은 최문자·송찬호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는 “이번에 수상작이 된 작품들은 특유의 감각적 선명성과 정신적 열도(熱度)를 느끼게 해주는 가변들로서, 아득하고 쓸쓸한 현실을 넘어 존재의 심층을 강렬하게 감싸안은 시인의 성정이 만져지는 결실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평했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각 부문 추천 우수작이 실려 있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운동주 서시문학상 추천 우수작에는 김백겸·오봉옥·조정인·최금진 시인의 작품이, 운동주서시해외작가상 부문 추천우수작에는 복영미·정국희·괴벨 연속 시인의 시가 담겨 있다.

한편 올해 운동주서시문학상 시상식 및 계간 시산맥 전국 행사가 오는 1일 오후 5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시산맥시회 총회(오후 4시)도 함께 개최되며 강미영 단원의 진도복과 가생무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문의 010-8894-8722, 010-3759-81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동균 시인



신지혜 시인



이유식 시인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었던

전동균

이 책은 읽는 자의 운명을 알려준다 갓난 아기의 피로 썩어 젖으나 말이 말을 뚫고 혼이 혼을 뚫고 간 흔적만 흐린 얼룩으로 남아있다

모든 그림자에게 빛을, 빛에게는 그림자를 던져주지만 일곱 개의 촛불을 켜 금요일 밤, 장님이 된 자만 읽을 수 있다 읽는 동안 운명이 바뀌고 마침내 빛이 없는 찬란을 만나 또다시 제 눈을 찢어야 한다

재 속에서 태어난 물고기 같은 책

피고 지는 나뭇잎, 연인의 젖은 입술, 부서지는 얼음조각에도 숨어 있는 이 책은 오늘 내 눈물 속에서 울고 있다 웃고 있다 불타고 있다

한때는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었던
당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이정국 작 영화 ‘엄마의 편지’

광주에서 만들어진 영화 17편 만나다

29~30일 문화전당서 ‘다양성 영화제’
30일 독립영화관서 ‘난민 영화제’도

광주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난민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는 ‘2회 광주 다양성 영화 상영회’가 29~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열린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시와 광주영상위원회가 진행한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영화 17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첫날 오후 2시에는 결혼사진을 찍는 예비부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웨딩촬영’ (21분·장광균 연출)을 시작으로 ‘더 플라워’ (김아솔), ‘간이역’ (정호진), ‘여행’ (정광식), ‘2학년 김해인’ (김해인) 등 단편영화 5편으로 문을 연다. 이어 청년의 우울한 현실을 다룬 ‘침묵의 나선’ (정광식·48분)과 딸 몰래 버스킹 공연을 다니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 (이예승), ‘블랙 아웃’ (김수현), ‘석양의 펠로’ (이정국)가 상영된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진행한 뒤 개막작 ‘엄마의 편지’ (이정국·17분)와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이 체·27분)가 관객들을 만나다. ‘엄마의 편지’는 글을 쓸 줄 모르는 80세 노모가 향해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한 여정을 그렸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이정국 감독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다음 날 오후 2시에는 오노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한 이야기 ‘마한이 나르샤’ (이다빈, 이민규)

를 시작으로 로맨스 영화 ‘연애인턴 최우성’ (임수정), ‘오늘이 날이다’ (윤예진), ‘을’ (심승준)과 장편 ‘걷기 좋은 날’ (박용주·102분)을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20분 폐막 행사를 마친 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청년 아빠를 다룬 ‘강우 이야기’ (이민규)로 상영회의 막을 내린다.

광주시의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광주영상위원회는 회원에게 광주에서 촬영하는 영화·드라마에 보조 출연자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69-5472.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하나로 ‘광주난민영화제’를 30일 오후 3시 동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마주하다, 맞이하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는 이집트, 레바논 등 중동지방 해외영화를 포함해 모두 3편을 상영한다.

먼저 혼란스러운 이집트의 한 거리에서 맞닥뜨린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 ‘그레이’ (2013·15분)로 영화제의 문을 연다. 이어 레바논·시리아에서 촬영된 ‘스킨’ (2015·85분)은 시리아 내전으로 상처가 얼룩진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채의석 감독 연출 ‘숨’ (2017년·70분)을 통해 난민 신분으로 한국서 살아가는 방글라데시 원주민 줌퍼족 가족의 일상을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티베트 난민 출신 카락 뱀뱀의 축하공연과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상근변호사의 강연도 진행된 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4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포니에타 올 마지막 무대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겨울 애상’ 주제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사진)가 30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7번째 정기연주회 ‘겨울 애상’으로 올해 마지막 공연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인 (사)문화예술진흥회 소속 단체 광주신포니에타는 이번 무대에서 광주 출신 작곡가 이진우의 ‘서곡 하멜과 산홍’ (Hamel and Shanhong Overture)을 초연한다.

오케스트라 곡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1653년 제주에 폭풍으로 표류해 7년간 조선에 머무른 후 여수를 통해 네덜란드로 귀향한 하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철성 국제음악제 조직위원을 지낸 작곡가 이진우는 현재 한·중·일 작곡가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신포니에타는 이어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작품 364’와 베토



벤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에는 이창훈 광주신포니에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과 비올리스트 엄광용이 협연한다.

문의 062-376-720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베토벤·멘델스존...청소년 음악회

광주시향 오늘 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9일 오후 3시,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낭만음악편’을 연다.

‘바로크음악’과 ‘고전음악’ 편에 이어 ‘낭만음악’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는 베토벤과 차이코프스키, 멘델스존 등의 작품을 만난다. 미국 신시내티 음대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현이 지휘봉을 잡고 서경대 등에 출강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남카라가 협연한다. 또 지역 중경배우 이명덕의 연기로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휘 조정현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